

생명 탄생의 성탄

작성일 : 2012. 11. 18.(일) 밤 11시 40분

작성자 : 김슬기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내 사랑아.

진정으로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.

네 숨이 다하는 날까지

살아 있는 이 역사를 증거하자.

이제 곧 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온다.

나 성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

사랑하는 인간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

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했던 나날들을 기념하며

되새기는 날이 오는구나.

세상은 이 날을 세상 식으로 바꿔 버렸다.

본래 성탄절이란 날은

100% 나 성자를 위해 만들어진 날이 아니었다.

기독교인들이 교인을 모으기 위해

하나의 축제와 행사로 만들어

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이었고,

자기 유익을 채우기 급급하기도 하였다.

하지만 이 날이

온 세상에 성탄절로 지정이 되어

많은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허락한 이유는,

진실로 나를 만나고자 했던 자들이

이날을 통해 나 성자에게 올 수 있는

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.

나는 이 날이 진정으로

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길 바랐다.

나 성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 자체가 생명이요,

그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.

하지만 도리어 많은 생명들이 죽어 나가고

많은 자들의 영혼이

흑암에 팔리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.

그렇기에 나는 성탄절이

진정으로 살리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.

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.

성탄절에 보다 더 새로운 자들이 오지 않느냐.

성탄절이 문이 되어

나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.

나 성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기뻐하고

축하하기 위한 장이 되려면

나 성자의 탄생을 기념하는

상징적인 '성탄절'이,

세상에 있는 준비되고 예비된

나의 사랑하는 자들이

'신부'로서 탄생하고,

새 시대로 '탄생'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.

나 성자를 증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.

다가오는 성탄절이

섭리사 집안 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.

나는 많은 생명들이 와서

나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,

너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,

새로 온 생명들에게도

기쁨이 되기를 바란다.

함께한 자들의 모든 기쁨을

나 성자가 채워 줄 것이다.

그저 축제로써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닌,

사랑과 진리로부터 오는

기쁨을 채워 줄 것이다.

또한, 나 성자를 만난 기쁨,

나 성자를 만나게 해 준

내 분체를 알게 된 기쁨,

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게 해 주고 싶구나.

그러니 내 신부들 모두 준비 잘하여서,

기쁨을 교통하고

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.

내가 초대한 자들이 있으니,

그 자들을 꼭 데리고 오자.

나 성자의 사랑을 알도록,

그들의 마음을 녹이도록,

그 날에 너희가 진정 나의 증거자가 되자.

너희의 계획 안에 내가 함께할지니,

나와 함께 꾸리고 만들도록 하자.

부지런히 뛰고 달려

후회 없는 연말을 맞도록

나의 심정을 대변하여

내 뜻과 사랑을 전하자.

너희와 함께한다.

